

제 268호 · 2014년 8월 6일

미래전략연구본부 국제물류연구실 국제물류투자분석센터

총괄 이성우 실장, 감수 길광수 감리위원

# KMI

## 국제물류위클리

K O R E A   M A R I T I M E   I N S T I T U T E

### | CONTENTS |

#### 물류 정책·사업동향

1. 아시아발 유럽행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 괄목할 성장세
2. 글로벌 포워드, 생존을 위한 전략 전환에 직면
3. SEKO Logistics, 온라인 판매 부문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4. Norbert Dentressangle, 미국 물류기업 Jacobson 지분 인수

#### 물류 시장동향

1. YTO Express, 중국 국내선 항공화물 운송시장 진출
2. Mitsubishi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디젤 수입 터미널 구축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 물류정책 · 사업동향

## □ 아시아발 유럽행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 괄목할 성장세

- 2014년 7월까지 유럽과 미국의 수입 물동량 덕분에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4년 6%, 2015년 6.7% 증가가 예상된다고 클락슨 보고서(Clarkson)<sup>1)</sup>가 밝힘
  - 이 보고서는 전 세계 컨테이너 물동량은 2014년에는 1억 7,080만 TEU, 2015년에는 1억 8,230만 TEU가 될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이 보고서는 2014년 유럽 소비자들의 수요 증가로 인해 극동발 유럽행 항로의 컨테이너 물동량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힘
  - 클락슨은 극동에서 유럽으로 가는 주요항로(극동→유럽, Mainlane Westbound)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이 연평균 6.2% 증가하여 2014년 총 1,510만 TEU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이는 2010년 이래 가장 빠른 성장세라고 언급함
- 또한 클락슨은 태평양항로(Eastbound)의 연간 컨테이너 물동량도 2010년 이래 가장 높은 연평균 증가율 5.4%로 인해 2014년 총 1,460만 TEU가 될 것이라고 예측함
- 특히 보고서에서는 2014년 아시아의 역내 컨테이너물동량은 전년 대비 7.7% 증가한 총 4,820만 TEU가 될 것이라 언급함
- 그리고 클락슨은 2014년 남북교역항로(North-South trade)의 컨테이너 물동량도 5.7% 증가한 3,050만 TEU가 될 것이라고 언급함

## &lt; 항로별 컨테이너 물동량 전망치 &gt;

구분	태평양항로	극동-유럽항로	전체 주요항로		남북항로		아시아 역내		전 세계	
	백만TEU	백만TEU	백만TEU	증가율	백만TEU	증가율	백만TEU	증가율	백만TEU	증가율
2007	21.1	19.2	47.1	9.1%	21.3	6.3%	31.7	11.6%	129.5	10.8%
2008	20.5	19.1	46.1	-2.0%	22.8	7.0%	33.0	4.1%	134.7	4.0%
2009	18.4	17.4	40.9	-11.3%	21.4	-5.9%	30.2	-8.2%	122.4	-9.2%
2010	20.3	19.6	45.6	11.5%	24.7	15.4%	35.5	17.5%	139.3	13.8%
2011	20.8	20.4	47.3	3.8%	27.2	9.9%	38.8	9.2%	149.3	7.2%
2012	20.8	20.1	47.1	-0.5%	27.5	1.1%	41.7	7.5%	153.7	3.0%
2013(e)	21.7	21.0	48.9	4.0%	28.8	4.9%	44.7	7.2%	161.2	4.9%
2014(p)	22.7	22.2	51.4	5.0%	30.5	5.7%	48.2	7.7%	170.8	6.0%
2015(p)	24.0	23.5	54.3	5.7%	32.6	7.0%	51.9	7.8%	182.3	6.7%

주1) (e)추정치, (p)예측치; 주2) 주요항로(Mainlane)는 태평양, 극동-유럽, 대서양항로; 주3) 양방향 컨테이너물동량  
 자료: Clarkson Research Services, "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 Vol. 16, No. 7, July 2014.

자료 : shippingwatch.com, 2014.7.25 / Clarkson Research Services, 2014.7.

이언경 전문연구원 (☎ 02-2105-2919, eklee@kmi.re.kr)

1) 클락슨의 "Container Intelligence Monthly(2014년 7월)" 보고서



## □ 글로벌 포워더, 생존을 위한 전략 전환에 직면

- II사의 'Global Freight Forwarding 2014'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글로벌 포워딩시장 규모는 2012년 대비 3.3%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포워더들은 생존을 위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직면함
- 글로벌 포워딩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요인으로 글로벌 생산체계의 지역화 전환을 들 수 있음
  - 아프리카, 중동, 남아메리카, 동남아 등이 중국의 대체 생산지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EU가 자국 인근에 위치한 신흥시장인 멕시코나 터키 등에 해외 생산기지를 구축하는 니어소싱(near-sourcing)이 현실화되고 있음
  - 또한 생산비용을 줄이고자 저임금 국가에 생산기지를 이전했던 선진국 제조기업의 본국으로 리쇼어링(re-shoring)이 이루어지고 있음
- 또 다른 변화 요인으로 신규 무역루트의 형성을 들 수 있음
  - 물량 기준으로 미국과 유럽의 최대 무역파트너는 여전히 중국, 일본 등 익숙한 국가들이지만 새로운 무역상대국의 부상으로 물량이 점차 줄고 있음
  - 실제로 유럽과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물량 기준)에 브라질과 알제리, 터키 등 주변 신흥국이 포함되기 시작함
- 많은 화물 포워더들이 이러한 역동적 변화에 대처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가장 좋은 방법은 신흥 시장과 특정 산업, 신규 솔루션 제공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수정하는 것임
  - 신흥시장은 지속적으로 화물 포워딩 시장의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임
  - 일부 포워더들은 의약품, 식품, 첨단기술 제품 등 정온관리가 요구되는 제품과 같이 산업특화적인 솔루션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한편 생산 및 운송의 지역화, 더 나아가 지방화가 진전되어 감에 따라 복합운송 수단이 기존의 항공 및 해상 운송과 더불어 포워더들이 세계경제환경 변화 속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자리를 잡을 것임
- II의 선임 애널리스트 Cathy Roberson에 따르면 글로벌 포워딩 시장은 진화하고 있는 중이고 이러한 경제 및 시장의 변화에 가장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포워더들이 앞으로 승자가 될 것임
  - 사실 글로벌 포워딩 시장이 2012년 이후부터 줄어들고 있기는 있지만, 2017년까지 연평균 6.7%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향후 전망은 긍정적임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7.31.

김은우 전문연구원 (☎ 02-2105-2828, hisgrace@kmi.re.kr)

## □ SEKO Logistics, 온라인 판매 부문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투자

-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SEKO Logistics는 영국 소매업체들의 온라인 판매 부문의 경이적인 성장에 대응하기 위해 152,000평방미터 규모의 신규 물류센터를 개장했음
  - 신규 물류센터는 SEKO Logistics의 글로벌 전자상거래, 배송관리 서비스 등 옴니채널(omni-channel)<sup>2)</sup>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
- 신규 물류센터는 영국 런던과 버밍햄의 중간 지역인 밀턴케인즈(Milton Keynes)에 위치하고 있으며, 영국 소매브랜드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개장한 미국 노샘프턴(Northampton) 지역에 위치한 물류센터와 비슷한 규모임
  - SEKO Logistics는 또한 런던 히드로(Heathrow) 공항에 신규 물류센터를 개장할 예정임
- SEKO Logistics의 Keith O'Brien 이사는 "영국 소매업체의 온라인 판매량은 2013년 40억파운드를 기록하였으며, 2020년에는 280억파운드로 약 7배가량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언급함
  - 세계 온라인판매 시장의 성장률은 영국내 시장 성장률을 웃돌고 있으며, 이러한 성장에 맞추어 SEKO Logistics측은 온라인 판매 부문 수익을 현재 14%에서 2020년 40%로 대폭 늘려잡고 시설 및 설비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음
  - 또한 글로벌 전자 상거래 시장에서 소비자 동향에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임
- 밀턴케인즈의 신규 시설은 150여명의 인력을 채용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신규 시설의 개장 준비를 비롯하여, 온라인 판매 부문 확장을 위해 고안된 'SEKO 스토어 개발 서비스(SEKO Store Development Services)'를 지원할 예정임
- Keith O'Brien 이사는 또한 SEKO Logistics의 최신 시설에 대한 투자는 영국 물류서비스 선두 업체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덧붙임

자료 : [www.prnewswire.co.uk](http://www.prnewswire.co.uk), 2014.7.8.

손보라 연구원 (☎ 02-2105-2914, [bora62@kmi.re.kr](mailto:bora62@kmi.re.kr))

2) '모든 것'을 뜻하는 '옴니(Omni)'와 제품의 유통경로를 뜻하는 '채널(channel)'의 합성어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모바일 등 모든 채널을 유기적으로 융합하여 고객 가치의 극대화를 도모하는 한편, 이를 통해 판매를 촉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의미

## □ Norbert Dentressangle, 미국 물류기업 Jacobson 지분 인수

- Norbert Dentressangle(ND)<sup>3)</sup>은 사모펀드 회사인 Oak Hill Capital Partner가 보유한 Jacobson<sup>4)</sup>의 지분 인수(7억 5천만 달러 규모)를 통해 글로벌 물류회사로서 입지를 다짐
  - Jacobson은 2013년에 8억 달러의 매출 실적을 올렸으며 EBITDA<sup>5)</sup>는 같은 해 8천만 달러로 매우 인상적인 수익을 달성함
- 이번 인수에 대해서는 ND가 그동안 운송주선업 인수를 검토해온 탓에 예상을 벗어난 인수라는 것이 업계의 반응임
  - Jacobson은 미국 전역에 구축한 물류창고 네트워크를 통해 미국 국내시장에만 서비스를 제공해옴<sup>6)</sup>
  - ND의 사업 영역은 약 50%가 미국 중서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운송관리부문을 통해 전체 매출의 4분의 1을 달성
- 그 동안 ND는 지속적인 수익 창출을 통해 성장을 거듭함
  - 계약물류 사업의 주도로 2014년 상반기 매출 실적은 13.4% 증가함
  - 한편 도로운송 부문은 인수를 포함한 매출이 5.6% 증가한데 비해 영업이익은 17% 증가함
- ND가 Jacobson을 인수한 이유 중 하나는 유럽 중심의 마켓에서 벗어나 빠른 성장세를 보이는 미국에서도 이윤창출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
  - ND는 영국의 경제 회복과 미국이라는 새로운 마켓의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ND는 지속적인 사업인수를 통해 북미에서의 큰 실적 달성을 기대하고 있음

자료 : www.theloadstar.co.uk, 2014.7.31.

양규석 연구원 (☎ 02-2105-2928, [yks8065@kmi.re.kr](mailto:yks8065@kmi.re.kr))

3) 프랑스 물류회사로서 세계 31위의 3PL회사(2012년 기준)이며 주로 프랑스와 영국에서 화물 운송, 물류 사업을 하고 있음

4) 미국의 물류회사로서 주요 사업은 창고업임

5) Earning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sation: 법인세, 이자, 감가상각비 차감 전 영업이익

6) 84%는 전용창고이며 나머지는 공동창고로 운영함

## 물류시장동향

## □ YTO Express, 중국 국내선 항공화물 운송시장 진출

- 중국 특송업체 YTO Express는 중국 항공화물 운송시장 영업 허가를 받고 자국내 항공운송 서비스 진출을 준비 중임
  - Air Transport World에 따르면, YTO Express는 항저우(Hangzhou) 샤오산(Xiaoshan) 국제공항을 거점으로 보잉 737-300 혹은 737-400 화물기를 투입하여 국내선 항공화물 운송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YTO Express는 향후 10년간 화물부문 투자 예정액 55억 위안(약 8억 9,000만 달러)<sup>7)</sup>의 일부를 활용하여 향후 3년간 항공화물기(보잉사)를 15대까지 확충할 예정임
  - 또한 지난 2년간 YTO Express는 중국내 서비스 추가 확장을 위해 중국국제항공 및 중국동방항공과 자국내 창고시설 이용에 대한 파트너십 협정을 체결함
- 중국 국내 특송업체들이 국내 항공화물 시장에서의 수익성을 높이기 위하여 화물운송 자회사를 설립하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
  - CAAC<sup>8)</sup>에 따르면, 중국 항공화물 물동량이 900만 톤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600만톤이 국내선 시장의 물동량일 것으로 전망됨

자료 : www.transportintelligence.com, 2014.7.25.

민경창 연구원 (☎ 02-2105-2741, kcmi0525@kmi.re.kr)

## □ Mitsubishi사,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에 디젤 수입 터미널 구축

- 일본 Mitsubishi사는 2014년 7월22일 Port Bonython Fuels(PBF)<sup>9)</sup>에 디젤 수입전용 터미널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
  - 건설 비용 약 1억 1천만 달러로 추정되며, 터미널의 최종 설계 및 시공 단계가 2014년 3/4분기 내 시작함
  - 2016년 2/4분기를 목표로 터미널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터미널 구축으로 인한 에너지, 자원, 수송 및 산업 부문의 수요 증가가 전망됨
  -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디젤 연료의 수입, 판매 및 유통 사업의 기반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

7) 1 CHY = 0.06 USD (외환은행 2014년 8월 1일 매매기준율)

8) Civil Avi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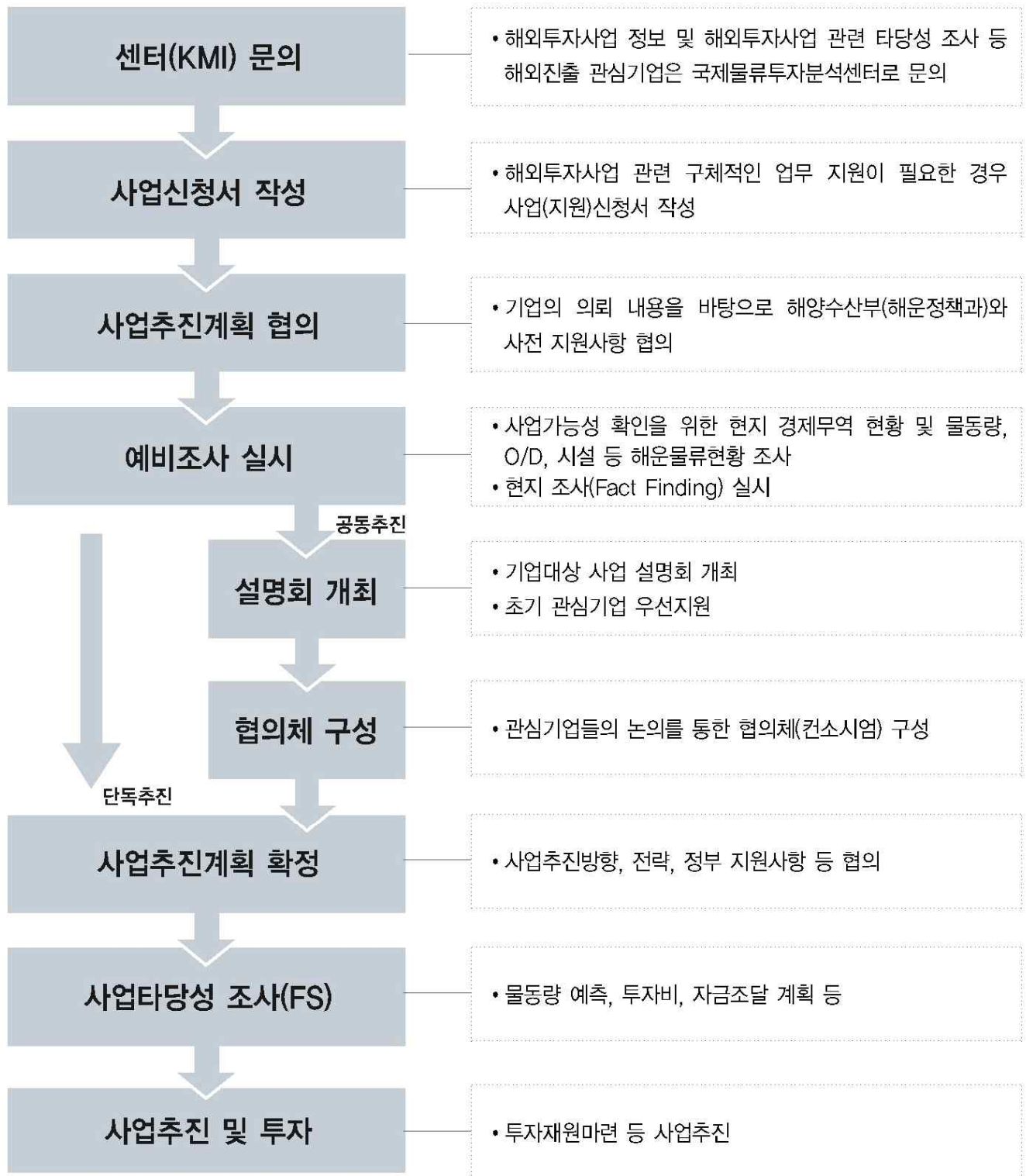
9) 오스트레일리아의 연료 수입 저장 유통업체

- Mitsubishi 자회사인 Petro Diamond Australia는 2013년 1월 Port Bonython Fuels(PBF)을 인수
  - PBF는 Coogee Chemicals를 새로운 PBF의 주주이자 사업 파트너로 선정함
  - Mitsubishi사는 남 오스트레일리아 주 정부가 PBF 터미널 구축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발표함

자료 : [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http://www.portfinanceinternational.com), 2014.07.23

김주혜 연구원 (☎ 02-2105-4985, [joohye915@kmi.re.kr](mailto:joohye915@kmi.re.kr))

## [해외투자사업 추진절차 및 센터 이용문의]



\* 기초타당성 조사(실비 부담), 정부간 협상, 투자사업 관련 정보 및 기초 자료 제공